기획과제 2021-07

충북형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김미옥 · 최은희 · 황명구
김덕준 · 양서우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RI 2021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목차

제Ⅰ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주요 연구내용 ····· 5
   3) 연구 방법 ····· 5

제Ⅱ장
농식품바우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6

1. 농식품바우처 개념 및 논의 배경 ····· 6
2. 농식품바우처 국외사례 ····· 10
   1) 미국 SNAP ····· 10
   2) EU의 식품 및 생필품 지원사업(FEAD) ····· 16
   3) 유럽 국가의 농식품 지원사업 ····· 17
3.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 18

제Ⅲ장
농식품바우처 추진현황과 효과 / 21

1.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 21
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대효과 ····· 25

제Ⅳ장
농식품바우처 충북 도입방안 / 31

1. 충북의 현황 ····· 31
   1) 충북의 기초수급자 실태 ····· 31
   2) 충북의 로컬푸드 매장 현황 ····· 34
2. 괴산군 추진 사례 ····· 36
3. 충북형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 ····· 38
   1)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추진 방향과 과제(농촌경제연구원) ··· 38
   2) 충북의 농식품바우처 추진방향 ····· 40

제V장
결론 / 43

1.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4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 44

참고문헌 / 45

표목차

〈표 Ⅱ-1〉 식생활·의생활 영역 필요여부 응답비율(2018년 조사) ····· 7
〈표 Ⅱ-2〉 소득분위별 식품류별 1인당 섭취량 ····· 7
〈표 Ⅱ-3〉 소득계층별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 가구비율(2018년 조사) ····· 8
〈표 Ⅱ-4〉 소득분위별 식품류별 1인당 섭취량 ····· 9
〈표 Ⅱ-5〉 소득계층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2018년 조사) ····· 9
〈표 Ⅱ-6〉 각 국의 농식품바우처 특징 비교 ····· 10
〈표 Ⅱ-7〉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총소득 및 순소득 기준 ····· 12
〈표 Ⅱ-8〉 가구원수별 최대지원금액(MA) ····· 13
〈표 Ⅲ-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가구 ····· 22
〈표 Ⅲ-2〉 2021년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능 매장 현황 ····· 23
〈표 Ⅲ-3〉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개선 영향 ····· 25
〈표 Ⅲ-4〉 본사업화 가정 시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 ····· 27
〈표 Ⅲ-5〉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시 연간 소요예산 추정치 ····· 28
〈표 Ⅲ-6〉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증대 효과 ····· 28
〈표 Ⅲ-7〉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 29
〈표 Ⅲ-8〉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산업파급효과 ····· 29
〈표 Ⅲ-9〉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추진으로 인한 불평등도 완화효과 ····· 30
〈표 Ⅳ-1〉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 31
〈표 Ⅳ-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시도별, 가구원수, 세대구분 ····· 32
〈표 Ⅳ-3〉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가구구성볋, 소득수준별 ····· 33
〈표 Ⅳ-4〉 충북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현황 ····· 35
〈표 Ⅳ-5〉 농식품바우처 가맹점 ····· 37

그림목차

〈그림 Ⅰ-1〉 소득 주분별 식품비 지출액 변화 추이(월평균) ····· 3
〈그림 Ⅱ-1〉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 15
〈그림 Ⅱ-2〉 파머스 마켓/직거래 농업인 수 및 바우처 사용액 ····· 15
〈그림 Ⅱ-3〉 농식품바우처 카드 디자인 ····· 19
〈그림 Ⅱ-4〉 농협몰을 활용한 농식품바우처 온라인 구매 ····· 20
〈그림 Ⅲ-1〉 2021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지원 금액 ····· 23
〈그림 Ⅳ-1〉 로컬푸드직매장 유통경로 ····· 34
〈그림 Ⅳ-2〉 충북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현황 지도 ····· 34

제 I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업의 포용성 증가

○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용국가를 지향하게 됨으로써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 본격화(김상효 외 4인, 2019)

○ 이를 위해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품섭취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게 됨

-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형태(생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할 수 없음(김상효 외 4인, 2019)
- 현물 지원 중에서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기반 확대 또한 가능함(김상효 외 4인, 2019)
-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조 9천억원의 예산이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중 80%가 현금보조 형태로 지원되어 농식품 소비 증대 및 영양/건강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우리나라 소득 1/4분위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 자분율도 20%가 넘어 식생활 보장이 위험수준에 있고, 식생활 관련 질병의 발병율도 높아 이들 대상 식생활/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 및 확대가 시급하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가 있었음(김상효 외 4인, 2019)

-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도 현물 지원과 현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물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김상효 외 4인, 2019)

❍ 또한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안정성(food security)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김상효 외 4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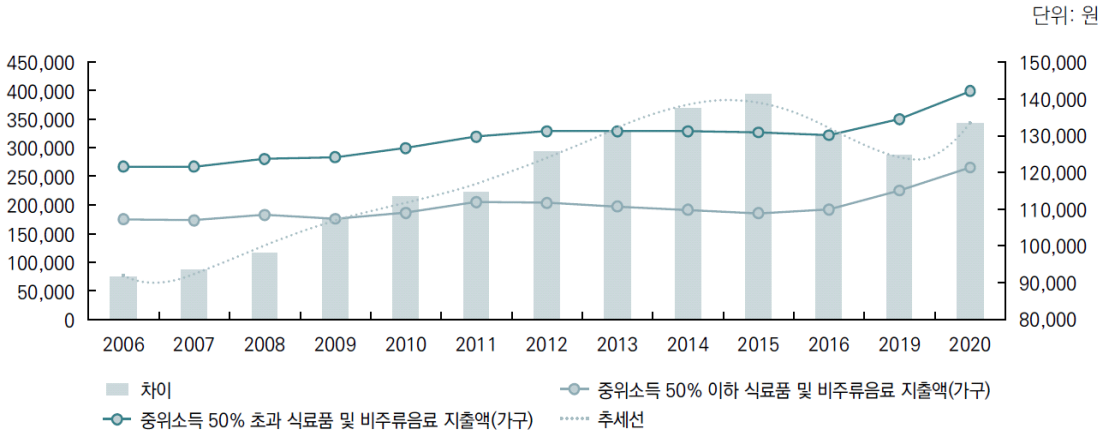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지출 증대와 그에 따른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의료비 절감효과,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김상효 외 4인, 2019)

■ 코로나19이후 농식품바우처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및 식품섭취 어려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김상효 외 4인, 2019)

❍ 실제로 김상효 외 2인(2021)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수준별 식품비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였음

- 김상효 외 2인(2021)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장기 시계열을 활용하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격차를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 간 식품비 지출액 격차를 분석해 보니 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을 밝힘
- 김상효 외 2인(2021)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액의 경우, 2006년 두 집단 간 격차는 월평균 9만 2천 원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는 월평균 14만 1천 원 수준, 2020년에는 월평균 13만 3천 원 수준까지 확대되고 이로 인해,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확대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주: 좌축 세로축은 소득 수준별 지출액을 의미하며, 우측 세로축은 두 그룹간 지출액 차이를 의미함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Ⅰ-1〉 소득 주분별 식품비 지출액 변화 추이(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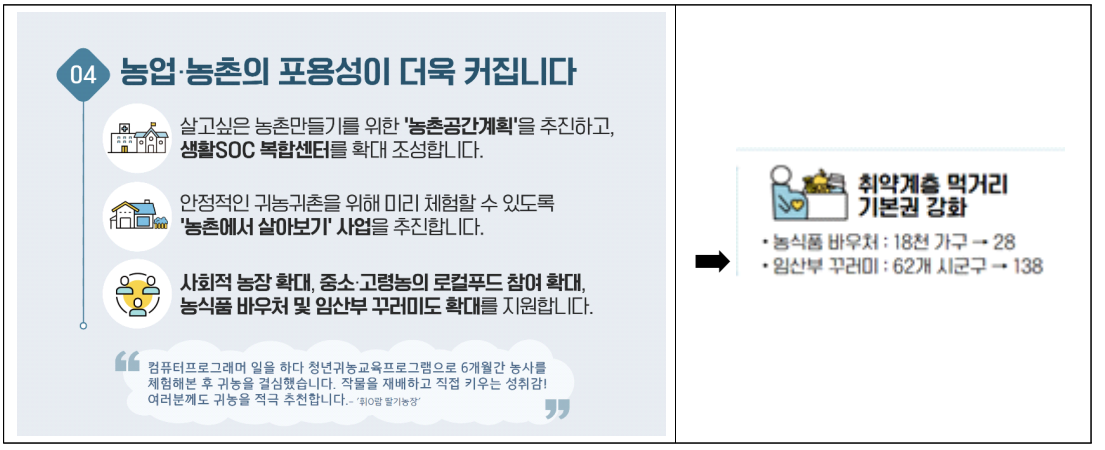
■ 2021년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방향

주요 업무 계획

시대 흐름과 요구에 맞는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

01.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02.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03.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04.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05.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2021plan/2707/subview.do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2021plan/2707/subview.do

❍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개편하는 방안 검토(김미옥, 2021)

-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3개 사업(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바우처) 효과 분석(6월) 및 통합 방안 마련(12월)할 계획임

❍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강화 방침에 농식품바우처가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큼.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를 충북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함

❍ 따라서 충북의 복지, 농업, 행정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여 충북 취약계층을 위한 충북형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충북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시 어떤 점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충북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봄에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1년 현재

○ 공간적 범위
- 충북 일원

2) 주요 연구내용

○ 농식품바우처의 개념정리와 도입 필요성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사례 분석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효과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충북 적용 방안

3) 연구 방법

○ 실태조사 : 전국 및 충북 취약계층 현황
- 가용 통계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현황 분석

○ 사례분석 : 국내·외 농식품바우처 사례
- 해외 미국, EU 사례 수집 및 분석

○ 문헌조사
- 농식품바우처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제Ⅱ장 농식품바우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농식품바우처 개념 및 논의 배경

■ 농식품바우처 정의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1인 가구 한 달 기준 4~6만 원 상당의 과일, 채소, 쌀, 계란, 우유, 육류 등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구입도 가능하게 지원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필요성

○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지출액이 전체 평균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취약계층의 식품소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는 영양 섭취 불균형과 연결됨

○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40~50% 미만일 경우 에너지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류의 영양소가 권장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농촌경제연구원, 2019)
- 따라서 이에 칼슘과 비타민류의 영양소 섭취를 도울 수 있는 유제품과 과채류의 섭취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식품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영양 섭취 상태가 불균형해지면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식생활 관련 질병에 노출될 우려 또한 증가함(농촌경제연구원, 2019)
- 201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는 국민 전체 평균 대비 약 4.8배 수준으로 식생활의 문제점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 저작불편, EQ-5D(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지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나, 중위소득 40% 미만 계층의 건강 상태가 크게 취약하며,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도 50% 이상 계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농촌경제연구원, 2019)

- 또한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의 경우 23.2%로 중위 소득 50% 이상 계층의 11.3%에 비해 두 배 이상(농촌경제연구원, 2019)

❍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상태 악화나 식생활 관련 질병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취약계층에게는 건강기대수명 및 삶의 질 저하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국가 전체로서는 국가 의료비용 부담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의미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농촌경제연구원, 2019)

❍ 〈표 Ⅱ-1〉에서 보면 수급자들 및 저소득계층이 일반인에 비해 식생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소비 지출에 늘릴 여유가 없음을 보여줌

〈표 Ⅱ-1〉 식생활·의생활 영역 필요여부 응답비율(2018년 조사)

단위: %

식생활·의생활영역별(1)	식생활·의생활영역별(2)	소득별			
		전체	수급	저소득	일반
식생활	주 1회 고기 생선 구입	79.7	62.7	64.9	81.2
	주 1회 과일 구입	77.3	60.6	58.3	79.0
	가끔 기호 식품 구입	72.6	53.0	59.7	74.1
의생활	오버류 두 벌 정도	95.5	88.0	89.7	96.1
	정장을 한 벌 정도	80.0	45.2	53.9	82.8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	79.5	44.5	52.6	82.3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	48.2	18.7	21.7	50.8

자료: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97_N019&conn_path=I3

〈표 Ⅱ-2〉 소득분위별 식품류별 1인당 섭취량

단위: g/일. %

구분	소득분위별 품목별 섭취량				1/4분위와 4/4분위 차이 (g, B-A)	1/4분위와 4/4분위 비율 (% A/B)
	1/4분위(A)	2/4분위	3/4분위	4/4분위(B)		
곡류	293.3	289.7	291.9	295.8	2.5	99.2
채소류	302.6	299.6	318.1	325.9	23.3	92.9
과일류	134.0	156.0	161.2	180.7	46.7	74.2
음료류	156.3	205.5	235.3	271.3	115.0	57.6
육류	120.9	116.5	141.2	140.6	19.7	86.0
어패류	95.0	104.5	108.2	119.9	24.9	79.2
우유류	61.4	82.6	91.0	94.4	33.0	65.0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때 저소득 가구의 우유류와 과일류, 육류 섭취량이 크게 낮음

- 소득분위 1/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우유, 과일, 어패류, 육류 섭취량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곡류 섭취량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이는 취약계층이 곡물류 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함(농촌경제연구원, 2019)
- 식품 섭취의 불충분/불균형은 영양 부족/불균형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농촌경제연구원, 2019)

〈표 Ⅱ-3〉 소득계층별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 가구비율(2018년 조사)

단위: %

질환유무별	소득별			
	전체	수급	저소득	일반
무	44.1	7.1	20.7	46.9
유	55.9	92.9	79.3	53.1

자료: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97_N019&conn_path=I3

○ 〈표 Ⅱ-3〉과 같이 만성질환가구원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건강한 식품 섭취가 부족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요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임

○ 취약계층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상태도 심각해 농식품 지원제도의 확대 추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소득 수준별로 식품 불안정률, 영양 섭취 부족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등에 대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는데 중위소득 30% 미만에 해당하는 그룹의 식품 불안정률은 약 9.8%에 달하여 중위소득 50% 이상인 그룹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영양부족자 분율도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중위소득 50% 이상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임(농촌경제연구원, 2019)

〈표 Ⅱ-4〉 소득분위별 식품류별 1인당 섭취량

단위: %

구분	중위소득별				중위소득 30%미만 그룹과 50% 이상 그룹 간 차이 (%p, A-B)	중위소득 50%이상 그룹 대비 30% 미만 그룹의 비율 (% A/B)
	30%미만 (A)	30~40 % 미만	40~50 % 미만	50% 이상(B)		
식품불안정	9.8	10.3	7.3	1.2	8.6	816.67
영양섭취부족	20.6	16.6	16.5	12.4	8.2	166.13
에너지부족	42.2	36.3	35.8	30.1	12.1	140.20
고혈압	47.8	36.7	26.4	18.9	28.9	252.91
당뇨	17.8	15.9	11.3	6.4	11.4	278.13
고지혈증	22.2	19.2	18.4	14.0	8.2	158.57
비만	20.8	17.8	15.9	18.0	2.8	115.56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Ⅱ-5〉 소득계층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2018년 조사)

단위: %

경제적 어려움별	소득별			
	전체	수급	저소득	일반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0.5	4.4	2.2	0.3
공과금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이 있다	1.7	7.4	5.9	1.3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이상 미납하여 끊긴 적이 있다	0.3	1.9	1.4	0.1
추운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2	9.8	5.4	0.6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6	15.2	15.5	2.5
집세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1.0	1.5	4.1	0.7
자녀의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못 준적 있다	0.3	3.5	0.3	0.3

자료: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97_N019&conn_path=I3

○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계층은 0.3%인데 반해 수급계층은 4.4%, 저소득계층은 2.2%였음. 이는 수급계층과 저소득계층이 기본적인 식품소비도 어려운 비율이 일반계층에 비해 상당히 존재한 다는 것을 보여줌

2. 농식품바우처 국외사례

○ 김상효 외4인(2019)은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표 II-6〉 각 국의 농식품바우처 특징 비교

항목	미국 SNAP	EU의 FEAD	프랑스 PNAA	영국(Healthy Start)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 기준 완화 적용)	• 저소득 가구 중 극빈층	• 저소득 가구	• 산부, 4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
지원품목	•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빵, 곡물, 스택류, 비알콜음료, 종자, 채소재배용 화분	• 재료 패키지, 식사, 기부식품을 수집 및 배분하며 곡물, 쌀,유제품, 분유, 설탕, 육류, 채소, 이유식, 식용유 등을 지원 • 식품 외에는 의류나 세제 등 기초생필품 지원	• 육류, 생선, 통조림 과일과 채소, 해바라기씨유	• 우유,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 분유, 비타민
사용처	• 편의점,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베이커리, 채소 및 과일 판매점, 파머스 마켓 등	• 협력기관(공공기관이거나 비정부단체)	• 구호단체를 통해 전달	• 협동조합, 청과상, 농산물 가판대, 우유배달차, 약국, 슈퍼마켓임

자료: 김상효외 4인(2019)의 연구를 필자정리

1) 미국 SNAP

■ 도입배경

○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하여 식품 구매여력이 감소한 도시 빈곤층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39년에 푸드스탬프를 도입함(김상효 외 4인, 2019)

○ 농산물 공급과잉과 실업 문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실업자의 기본 식품구입을 지원하는데 활용됨(김상효 외 4인, 2019)

○ 초기에는 오렌지색 스탬프와 파란색 스탬프를 발급하였으며, 오렌지색 스탬프는 모든 식품, 파란색 스탬프는 공급과잉으로 판정된 식품만 구매가 가능함(김상효 외 4인, 2019)

○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농산물 공급여력이 떨어지고 실업이 감소하는 등 상황 변화로 중단되었다가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재도입함(김상효 외 4인, 2019)

- 기존 스탬프 방식에서 쿠폰으로 변경, 지원식품은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가구원 수에 맞추어 지원(김상효 외 4인, 2019)

■ 지원대상과 조건

○ SNAP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이며 해당 가구의 적격 여부는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김상효 외 4인, 2019)

○ 수혜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총소득 조건과 순소득 조건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소득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김상효 외 4인, 2019)

-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액)이 빈곤선의 130% 미만, 순소득(총소득에서 공제 적용 후 소득)이 빈곤선의 100% 미만(김상효 외 4인, 2019)
- 가구의 소득 수준이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총소득 및 순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수혜가구는 일자리 등록, 일정시간 이상 근로, 취업기회 수락,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함(김상효 외 4인, 2019)
- 피부양자 없는 성인(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 ABAWD)이 지원금을 3개월 이상 수령하기 위해서는 36개월 내 3개월 이상 평균 주당 20시간 이상 급여를 받는 노동을 하거나 사회보장부처에서 운영하는 고용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그 외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함(김상효 외 4인, 2019)

○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자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거주했거나,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 등 합법적으로 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SNAP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표 II-7〉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총소득 및 순소득 기준

가구원 수	총소득(연방빈곤선 130%)	순소득(연방빈곤선 100%)
1	$1,316	$1,012
2	$1,784	$1,372
3	$2,252	$1,732
4	$2,720	$2,092
5	$3,188	$2,452
6	$3,656	$2,812
7	$4,124	$3,172
8	$4,592	$3,532
가구원수추가 1인당	+$468	+$360

자료: 김상효외 4인(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가구당 지원금액

○ SNAP 프로그램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수령할 수 있는 식품비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해마다 책정되는 '최대혜택금액(Maximum Allotment: MA)'과 가구의 조정순소득의 차이임(김상효 외 4인, 2019)

- MA는 농무부 '절약식품계획(Thrifty Food Plan: TFP)'에 기초하여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비용을 추계한 후, 가구원이 4인 이하 혹은 이상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별도로 도출함(김상효 외 4인, 2019)

○ 지원금액 계산은 순소득을 계산하고 계산된 순소득에서 조정순소득을 계산하여 최대지원금액(Maximum Allotment: MA)에서 조정순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김상효 외 4인, 2019)

〈표 Ⅱ-8〉 가구원수별 최대지원금액(MA)

단위:$

가구원수 / 지역	1	2	3	4	5	6	7	8	추가 가구원 1인당
미국본토	192	353	505	642	762	914	1,011	1,155	144
괌	283	520	745	946	1,123	1,348	1,490	1,703	213
버진아일랜드	247	454	650	825	980	1,176	1,300	1,485	186
하와이	358	656	940	1,193	1,417	1,701	1,880	2,148	269
알래스카(도시)	232	425	609	773	918	1,102	1,218	1,392	174
알래스카(농촌1)	295	542	776	986	1,171	1,405	1,553	1,775	222
알래스카(농촌2)	360	660	945	1,200	1,425	1,711	1,891	2,161	270

자료: 김상효외 4인(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신청절차 및 참여방법

❍ 잠재적 참여자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사전 검증시스템(SNAP Eligibility Pre Screening Tool)을 운영하고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사전 검증시스템은 가구원수, 자산, 자동차, 소득, 주거비, 부양비, 의료비를 입력하면 대상 가구의 SNAP 적합여부와 예상 수혜금액을 알려줌(김상효 외 4인, 2019)
- 신청절차는 신청서 접수-인터뷰-자료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짐(김상효 외 4인, 2019)
- 신청서 접수는 현장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시 또는 카운티)의 사회복지 부서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접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함(김상효 외 4인, 2019)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가구는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게 됨. 인터뷰는 전화 또는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짐(김상효 외 4인, 2019)
- 인터뷰는 SNAP에 대한 설명, SNAP 지원금 계산방법, 대상 가구의 권한과 책임,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김상효 외 4인, 2019)
-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가 처음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결정내용은 승인, 거절 또는 추후 심사 등으로 구분됨(김상효 외 4인, 2019)

○ 한 번의 신청으로 결정되는 지원기간은 가구별로 다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가구는 재신청해야 함(김상효 외 4인, 2019)
- 단, 모든 가구원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지원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신청자는 신분증, 거주지역,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와 소득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김상효 외 4인, 2019)
-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정부보조, 자녀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리는 증서 등 모든 소득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함(김상효 외 4인, 2019)
-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는 병원비 진료영수증, 병원 진찰을 위한 교통비 영수증 등임
- 또한 신청자는 자산액을 신고해야 함. 신고 된 자산액이 의심스럽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신청자는 부양비용, 주거비, 자녀 부양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복지 담당자는 신고내역이 의심스러울 때만 검증을 실시함(김상효 외 4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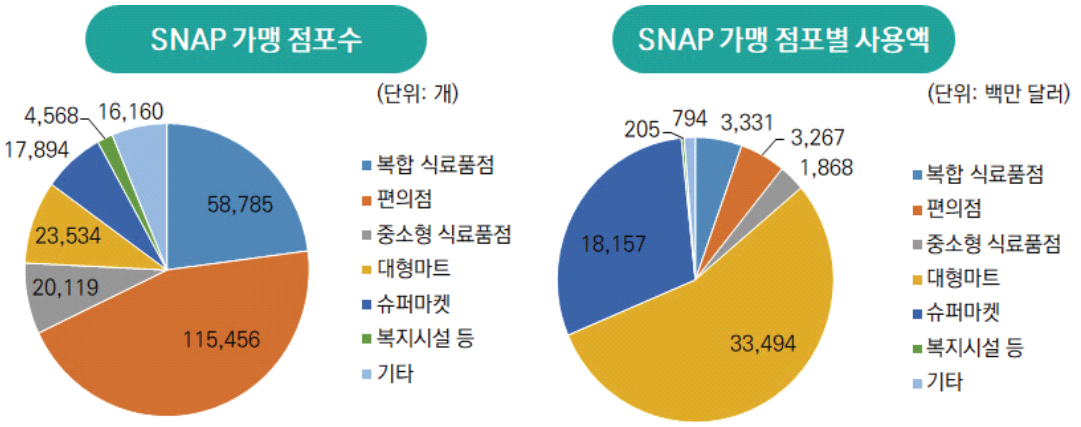
■ 지원품목과 사용처

○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빵, 곡물, 스택류, 비알콜 음료, 종자, 채소재배용 화분임(김상효 외 4인, 2019)

○ 주류, 담배, 비타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살아있는 동물, 즉석섭취식품, 기타 비식용제품은 바우처로 구매 불가함(김상효 외 4인, 2019)

○ 해당 품목은 편의점(Convenience Store),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베이커리, 채소 및 과일 판매점, 파머스 마켓 등 다양한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구매가능(김상효 외 4인, 2019)
- 2018년 기준 SNAP 가맹 점포는 총 25만 6,516개이며 가맹점포에서 사용된 바우처 금액은 611억 1,635만 달러에 이름(김상효 외 4인, 2019)
- 점포수를 기준으로는 편의점의 비중이 45%, 복합식료품점이 22.9%로 작은 규모의가맹점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바우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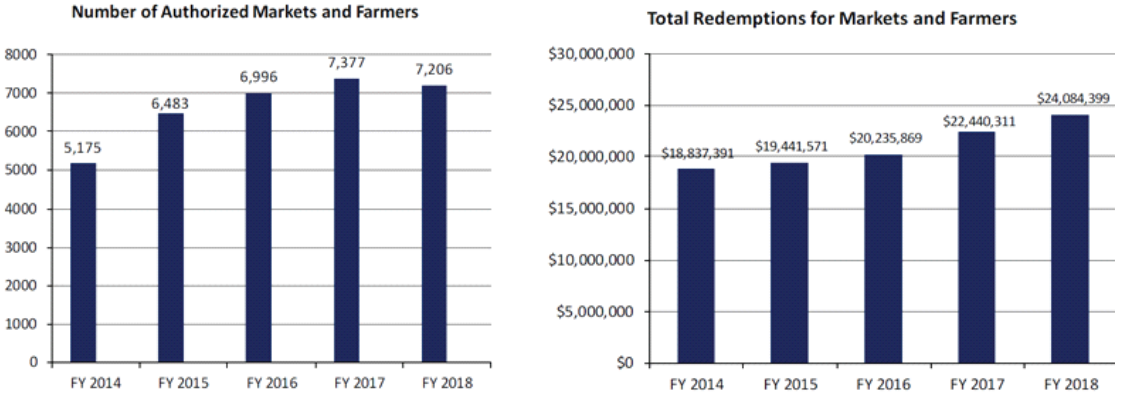
면, 대형마트가 54.8%, 슈퍼마켓이 29.7%로 규모가 큰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자료: 김상효외 4인(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그림 Ⅱ-1〉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 미국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파머스 마켓이나 직거래농업인에게는 수수료가 없는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파머스마켓이나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SNAP의 사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함(김상효 외 4인, 2019)



자료: 김상효외 4인(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그림 Ⅱ-2〉 파머스 마켓/직거래 농업인 수 및 바우처 사용액

2) EU의 식품 및 생필품 지원사업 (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FEAD)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식재료 패키지, 식사, 기부식품을 수집 및 배분하며 곡물, 쌀,유제품, 분유, 설탕, 육류, 채소, 이유식, 식용유 등을 지원함(김상효 외 4인, 2019)

- 식품 외에는 의류나 세제 등 기초생필품을 지원함(김상효 외 4인, 2019)

❍ EU 회원국은 식품과 기초생필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종류 모두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전체 27개 국가 중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를 제외한 21개 국가는 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식품만 지원하고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각 국의 정부는 식량과 구호품을 직접 구매하여 협력기관에 공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협력기관이 구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협력기관은 구호 식품을 직접 배분하거나 또 다른 협력 기관을 거쳐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 FEAD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은 공공기관이거나 비정부단체임(김상효 외 4인, 2019)

❍ EU의 FEAD 예산은 2014-2020년 기간 동안 총 38억 유로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각 국은 자국의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한 전체 비용의 15%를 지원해야 함(김상효 외 4인, 2019)

❍ FEAD에서 식품을 지원하는 대상은 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임(김상효 외 4인, 2019)

❍ 대부분의 국가에서 FEAD를 통해 식품 지원과 함께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교육, 재무상담, 심리상담,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제공함(김상효 외 4인, 2019)

3) 유럽 국가의 농식품 지원사업

○ 프랑스(Plan National d'Aide Alimentaire: PNAA)

- 프랑스 국가 식품지원플랜은 FranceAgriMer가 사회보장부처(General Directorate for Social Cohesion)와 식품부처를 대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김상효 외 4인, 2019)
- PNAA는 2004년에 설립되어 구호단체들이 식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관장하고 있으며 해당 구호단체는 프랑스 푸드뱅크 연합회, Restos du Coeur, Secours Populaire, 적십자임(김상효 외 4인, 2019)
- 구호단체들은 육류, 생선, 통조림 과일과 채소, 해바라기씨유를 매년 무상으로 공급받아 저소득층에게 전달함(김상효 외 4인, 2019)

○ 영국(Healthy Start)

- (자격) 임산부, 4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임. 소득기준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보조, 실업급여, 자녀장려금, 펜션크레딧 등의 수령 여부임(김상효 외 4인, 2019)
- (지원내용) 우유,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 분유, 비타민(김상효 외 4인, 2019)
- (지원방식) 여성과 1~4세 유아에게는 주당 3.10 파운드,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주당 6.20 파운드 상당의 종이 바우처가 발급됨(김상효 외 4인, 2019)
- (사용처) 바우처는 협동조합, 청과상, 농산물 가판대, 우유배달차, 약국, 슈퍼마켓임
- (신청방법) Healthy Star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및 우편 신청(김상효 외 4인, 2019)

3.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소득 불평등도 심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 확대, 영양 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 심화

- 취약계층의 영양 실태 및 섭취 수준, '식품 안정성' 확보율(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수준)도 크게 낮은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실조 환자(10만명당) : ('11) 36.9명 → ('15) 48.3명/ 국민 전체평균 4.8배
  - 중위소득 30%이하의 권장량 대비 영양섭취수준 : 칼슘 55.6%, 비타민A 80.9, 리보플라빈 69.5
  - 식품 안정성 : 중위소득 50%이상은 94.6%인 반면 중위소득 30%이하는 74.9%
-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건강) 불균형완화를 위해 신선농산물을 통한 보충적 영양 지원 필요
  - 중위소득 30%미만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83.6% 수준

○ 국내산 신선·고품질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중장기 농식품 수급계획, 푸드플랜 및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농식품바우처 사업내용(2020년 기준)

○ 대상지역 : 지역유형별 지방자치단체 4개 지역(공모 선정)

- 도농복합형(시)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형(군) : 전라북도 완주군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시범지역 18,640가구)

○ 소요예산 : '20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35억원

○ 시범지역 농식품바우처 지원(28억원) 및 사업 운영·관리(7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 가구원별은 OECD균등화지수 적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	지급기간
지급금액	40,000원	57,000원	69,000원	80,000원	…	3개월

- 영양보충 차액지원(4만원) = 최저식품비(24만원) - 사용가능 식품비(20만원)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 타용도 전환이 낮은 현물(농식품바우처)지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전자방식 도입

○ 구매가능 품목 : 채소, 과일, 우유, 계란(지정 품목만 구입·결제 가능)

○ 구매처 : (오프라인)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및 (온라인)농협몰

- 오프라인은 구매품목 지정·결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시범지자체 지역내 판매장



- 카드 전면 -



- 카드 후면 -

자료: 농식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07.13

〈그림 Ⅱ-3〉 농식품바우처 카드 디자인



자료: 농협몰, http://www.nonghyupmall.com/BC19030R

〈그림 Ⅱ-4〉 농협몰을 활용한 농식품바우처 온라인 구매

제Ⅲ장 농식품바우처 추진현황과 효과

1.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현물 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김상효 외 2인, 2021)

-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됨('17)
- (타당성 연구)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및 영양 실태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 대상·금액·전달체계 등 사업 설계안 마련('18. 2.)
- (실증 연구) 농식품바우처 사업에서 전자카드 결제방식시스템 도입·적용을 추진함. 또한 춘천/완주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의 농식품 지출액 증가 등의 사업효과를 검증('18. 6.~'19. 3.)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 심의 의무화('18.4. 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업 타당성, 중복성, 법적근거 및 바우처 전달체계 등에 대한 심의를 통과('18. 11.)
- (2020년 시범사업 추진) 4개 지자체, 시범사업 적용(예산 35억 원)
- (추진체계 구축)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완료('20. 2.)
- (2021년 시범사업 추진) 9개 지자체, 시범사업 적용(예산 171억 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시장소득과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함(김상효 외 2인, 2021)

○ 2020년 시범사업에서는 4개 시·군의 6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8,18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9개 시·군의 1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8,324가구를 지원하고 있음(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가구

연도	시·도	시·군	읍·면·동(개)	대상가구(호)
2020	경북	김천시	22	6,814
	세종	세종시	19	4,748
	전북	완주군	13	5,368
	충남	청양군	10	1,250
	합계		64	18,180
2021	경남	거제시	18	4,395
	충북	괴산군	11	1,663
	전북	김제시	19	6,017
	충남	당진시	14	3,108
	경남	밀양시	16	4,922
	경북	예천군	12	2,253
	충남	청양군	10	1,003
	강원	평창군	8	1,112
	전남	해남군	14	3,851
	합계		122	28,324

자료: 농식품바우처 aT 홈페이지(http://voucher.witches.co.kr/), 김상효외 2인(2021) 연구 인용

○ 시범사업 전자카드 발급·판매점은 '18년 실증연구 시 농협 계통을 통해 입증된 결과 등을 반영하여 농협 관련사가 참여함. 타 카드사, 대형 유통업체 등 판매점은 수익 구조상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능 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농협 계열 로컬푸드직매장 포함)이며, 농협 계열이 아닌 로컬푸드직매장도 부분적으로 참여함(김상효 외 2인, 2021)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 주문·배달 방식으로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다원화함.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농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방식을 도입하였고, 각 지자체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주문·배달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함(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2〉 2021년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능 매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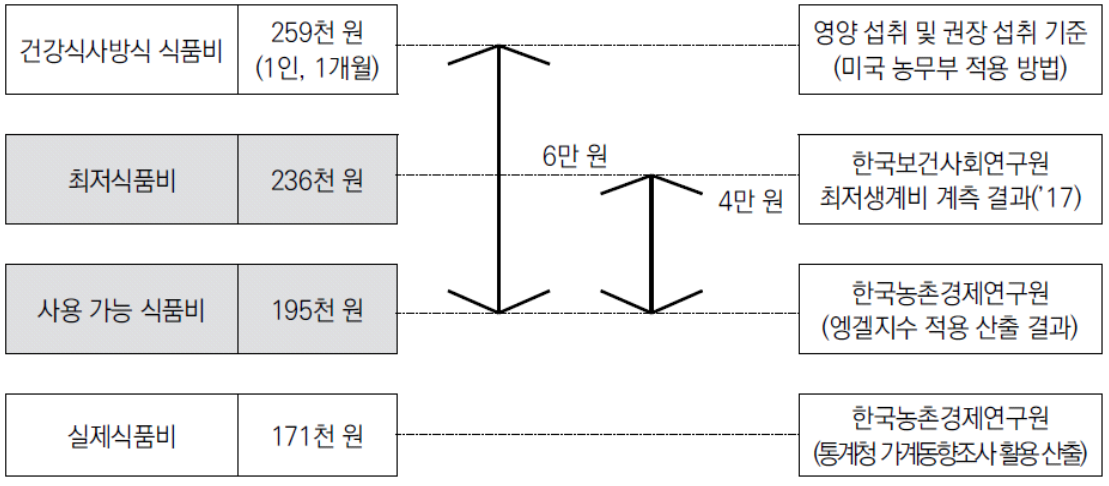
지자체	경남 거제시	충북 괴산군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경남 밀양시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강원 평창군	전남 해남군
취급 가맹점	23개소	14개소	20개소	19개소	16개소	16개소	13개소	11개소	19개소

자료: 농식품바우처 aT 홈페이지(http://voucher.witches.co.kr/), 김상효외 2인(2021) 연구 인용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지원 금액

○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 가능 식품비(행복e음 산출)의 차액인 4만 원(1인 기준)을 지원(김상효 외 2인, 2021)

-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김태완 외, 2017)와 저축을 고려하여 도출된 사용 가능 식품비 간 차액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음. 이는 1인당 한 달 기준 최저식품비(23만 6천 원)에서 사용 가능 식품비(19만 5천 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4만 원 수준임(김상효 외 2인, 2021)
- 가구당 구성원에 따른 지급액은 영양 보충적 차액 지원(4만 원)에 OECD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함(김상효 외 2인, 20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김상효외 2인(2021) 연구 인용

〈그림 Ⅲ-1〉 2021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지원 금액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을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담 기관으로서 사업 운영·관리, 결과 분석 및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수혜자 교육 및 사업 홍보를 실시함. 각 시·도는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국비 교부 신청을 관리·담당하고, 시·군은 국비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혜자 확정, 읍·면·동은 사업 수혜자 확인 및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담당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사업 예산

❍ 2020년 35억 원에서 2021년에는 171억 원 규모로 확대(김상효 외 2인, 2021)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2018년 첫 실증연구 당시 5억 원 규모로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구입 가능 품목,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2020년에는 35억 원, 2021년에는 171억 원 규모로 확대함(김상효 외 2인, 2021)

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대효과

■ 2020 시범사업 성과

❍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은 2020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표 Ⅲ-3〉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개선 영향

구분	지원 전	지원 후	증감	비고
아침식사율	66.6%	71.6%	5%	남성, 세종시, 60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지원가구 개선율 큼
식사의 규칙성	49.2%	56.8%	7.6%	남성, 완주군, 60대, 중위소득 50% 이하 중 생계급여 지원받지 않는 가구 개선율 큼
가족의 건강 평가	1.71점(3점)	1.95점	0.24점	세종시 개선율 크며, 성별, 소득, 수준별 차이 미미
식생활 만족도	2.81점(5점)	3.31점	0.5점	지원 전후 개선도가 가장 큼 모든 분석요인에서 개선도가 비슷
식생활 도움 정도	-	4.42점(5점)	-	5점 만점 수준으로 높은 긍정 인식 50대 척도 평균이 가장 높음 소득 수준별, 성별, 지역별 차이 미미
건강 및 영양보충 도움 정도	-	4.35점(5점)	-	
지원품목 1일 1회 이상 섭취 증가율	과일 35.5%, 계란 32.4%, 채소 21.8%, 우유 19.0% 순으로 증가			
국내산 농산물 관심도	2.41점(3점)	2.77점	0.36점	국내산 관심도 지원 전후 크게 증가 여성, 김천시, 50대의 관심도 크게 개선
지역산 농산물 관심도	2.33점(3점)	2.55점	0.22점	국내산 관심도보다 낮은 수준

주: 아침식사율은 아침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개선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대로는 40대, 가구원수는 1인 가구의 활용률 높고, 구매 품목은 과일〉채소〉계란 순이었음

- 시범사업 참여 소매유통업체 판매자료(POS)와 수혜자 소득 기초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사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

의 활용률이 가장 높았고, 가구원 수 별로는 1인 가구의 농식품바우처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활용 영향요인에 대한 계량분석에서도 읍 지역이나 동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연령대가 40대인 가구, 1인 가구일수록 농식품바우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많고 개발된 지역(동>읍>면), 5세 이하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일수록 활용률이 다소 높았고, 성별, 소득 수준(중위소득 30% 이하 및 이상 등) 요인은 활용률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해 주로 구매한 품목으로는 과일(35.2%), 채소(20.8%), 계란(10.2%), 우유(8.5%) 순으로 나타났고, 함께 구매한 기타 품목은 가공식품(59.4%), 육류(18.4%), 수산류(12.1%), 곡류(3.9%) 순으로 나타남(김상효 외 2인, 2021)

❍ 식생활 개선 효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기존에 비해 아침식사율 5%p 증가, 식사 규칙성 7.6%p 증가, 식생활 만족도 0.5점/5점 증가, 국내산 관심도 0.4점/3점 증가, 지역산 관심도 0.2점/3점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김상효 외 2인, 2021)

❍ 대다수의 수혜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았음. 구매 가능 품목의 확대, 지원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

-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96.3%가 농식품바우처 재참여 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업만족도는 4.28점(5점 척도),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 도움되는 정도는 4.5점(5점 척도)으로 높게 평가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87.5%가 구매 가능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수혜자의 75.4%는 지원 금액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김상효 외 2인, 2021)
- 한편, 농식품바우처 사용 가능 장소 및 이용 및 결제 방식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각각 61.9%, 83.3%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반면, 각 29.1%, 10.2%가 불편하다고 응답함. 이는 2020년 시범사업 당시 사용 가능 매장의 수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본사업화될 때에는 대상자를 전국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1인 가구 기준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

- 지역·소득 수준별로 시범사업 효과 및 식품비 지출, 영양 섭취 실태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김상효 외 2인, 2021)
-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맞게 건강식사 방식 가정식비와 취약계층의 사용 가능 식사비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인 1인 가구 기준 6만 원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4〉 본사업화 가정 시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 원

구분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A)	사용 가능 가정식비(B)	바우처 지원 금액(A-B)
전체 가구	285,095	314,047	불필요
생계급여 수급 가구		222,312	62,783
중위 50% 이하		222,932	62,163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본사업 기대효과

○ 김상효 외 2인(2021)은 영양권장섭취 기준 1인당 6만 원 지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대상 가정하여 본사업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음. 분석의 가정과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농식품바우처 지원 본사업에서의 지원 금액 산출 결과를 활용하여 1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함. 평균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곱하여 가구당 평균 67,350~69,195원(=60,000원*평균가구원수) 이 지원된다고 가정함(김상효 외 2인, 2021)
-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DID) 분석 결과, 평균 38,000원의 식품비가 지원되었을 때 식품비 사용이 평균적으로 33,84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이계임 외 2019). 이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 금액의 11%를 제외한 나머지 89%가 식품비 지출로 이어졌다고 가정함(김상효 외 2인, 2021)

- 한편,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12개월) 60,000원(1인 가구 기준)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함. 대상자 선정의 용이성을 위해 1)생계급여 수급 가구, 2) 중위소득 50% 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로 구분하여 분석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사용 금액 중 품목별 사용 비율은 이계임 외(2019)의 실증연구 결과를 인용함. 과일 23.2%, 채소 26.4%, 곡물 42.1%, 우유 8.3% 수준임. 구입 가능 품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석 결과를 인용 시 주의해야 함(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5〉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시 연간 소요예산 추정치

구분	가구 수 (중복 제거)	1개월 지원비 (1인 기준, 원)	가구당 가구원 수	가구당 1개월 지원비(원)	농식품바우처 지원금 총액(12개월 기준, 억 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	1,029,263	60,000	1.26	67,350	8,318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998,379	60,000	1.33	69,195	16,593

주 1) 위 추정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만 계산한 것이며, 식생활 교육이나 푸드플랜 연계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임
2) 가구당 가구원 수는 연도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치를 활용함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①: 농식품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1조 6,593억 원 지원 시 1조 4,777억 원이 농식품 소비로 활용(김상효 외 2인, 2021)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과일, 채소, 곡물, 우유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가한 식품비인 1조 4,777억 원은 과일 3,423억 원, 채소 3,903억 원, 곡물 6,227억 원, 우유 1,225억 원으로 분배(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6〉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증대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지원금 총액	식품비 증가	과일 지출액 증가	채소 지출액 증가	곡물 지출액 증가	우유 지출액 증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6,593	14,777	3,423	3,903	6,227	1,225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대효과 ②: 의료비 절감 효과 분석 결과, 수혜자의 한계저축성향에 따라 연간 3,372억~4,435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김상효 외 2인, 2021)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분석에 따르면 식품비 비율이 1% 증가 시 의료비 지출 비율은 0.3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김상효 외 2인, 2021)
- 개인적 의료비 절감액은 1,234억~1,623억 원이며, 건강보험 보장률 63.4%를 적용한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은 2,138억~2,81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7〉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한계저축성향	구축효과	지원금액(원)	취약계층 의료비 절감액(A) (단위: 백만 원)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B) (단위: 백만 원)	총 의료비 절감액 (C)=(A)+(B) (단위: 백만 원)
0	0.11	60,000	123,421	213,795	337,216
0.5	0.11	60,000	142,868	247,482	390,351
1	0.11	60,000	162,316	281,170	443,486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③: 산업파급효과 분석 결과, 전 산업에 1조 3,485억 원의 생산과 9,464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2만 9,159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요 증가 및 대체효과에 따른 비지원 품목의 수요 감소효과, 구축효과에 따른 비식품 소비 증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8〉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산업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바우처 지원 품목 관련 산업	17,814	10,249	32,491
바우처 지원 품목 외 식품산업	-6,480	-1,724	-4,516
그 외 비식품 산업	2,151	939	1,183
계	13,485	9,464	29,159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본사업화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④: 불평등도 개선효과 분석 결과, 가정식비에 대한 지니계수는 다소 감소, 경상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상소득 및 가정식비 지출액에서의 불평등도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한국복지패널의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사업 전후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제시 함(김상효 외 2인, 2021)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가정식비에 대한 지니계수는 0.284에서 0.278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4593에서 0.4591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김상효 외 2인, 2021)

〈표 Ⅲ-9〉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추진으로 인한 불평등도 완화효과

구분	지원 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지원 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후
경상소득	0.45928	0.45914	0.45911
가정식비	0.28430	0.27816	0.27723

자료: 김상효·이계임·유기환(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Ⅳ장 농식품바우처 충북 도입방안

1. 충북의 현황

○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전 농식품바우처사업의 대상자가 될 충북의 기초수급자 실태를 살펴보고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는 로컬푸드 매장 현황을 파악해 보았음

1) 충북의 기초수급자 실태

〈표 Ⅳ-1〉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구분		전국		충청북도	
		수급자 수(명)	비중(%)	수급자 수(명)	비중(%)
계		2,046,213	100.0	63,967	100.0
성별	남자	920,321	45.0	27,886	43.6
	여자	1,125,892	55.0	36,081	56.4
연령	0 - 4세	27,383	1.3	1,000	1.6
	5 - 9세	75,857	3.7	2,780	4.3
	10 - 14세	122,728	6.0	4,349	6.8
	15 - 19세	150,991	7.4	4,917	7.7
	20 - 24세	87,004	4.3	2,355	3.7
	25 - 29세	38,506	1.9	1,090	1.7
	30 - 34세	35,868	1.8	1,217	1.9
	35 - 39세	57,293	2.8	2,031	3.2
	40 - 44세	84,302	4.1	2,719	4.3
	45 - 49세	127,874	6.2	3,706	5.8
	50 - 54세	157,281	7.7	4,588	7.2
	55 - 59세	170,538	8.3	4,973	7.8
	60 - 64세	187,074	9.1	5,519	8.6
	65 - 69세	175,071	8.6	5,122	8.0
	70 - 74세	155,542	7.6	4,420	6.9
	75 - 79세	155,790	7.6	5,018	7.8
	80 - 84세	129,738	6.3	4,332	6.8
	85 - 89세	73,360	3.6	2,647	4.1
	90 - 94세	27,117	1.3	928	1.5
	95 - 99세	6,003	0.3	228	0.4
	100세 이상	893	0.0	28	0.0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

- 충북의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는 63,967명이었음. 특히 50~69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성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음. 전국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만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음

〈표 Ⅳ-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시도별, 가구원수, 세대구분

가구특성별(1)	가구특성별(2)	전국		충청북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합계	소계	1,459,059	100.0	45,935	100.0
가구원수	**1인가구**	**1,012,753**	**69.4**	**32,309**	**70.3**
	2인가구	**249,521**	**17.1**	**7,543**	**16.4**
	3인가구	113,305	7.8	3,387	7.4
	4인가구	55,325	3.8	1,718	3.7
	5인가구	20,611	1.4	690	1.5
	6인가구	5,448	0.4	205	0.4
	7인가구이상	2,096	0.1	83	0.2
세대구분	**노인세대**	**439,135**	**30.1**	**14,103**	**30.7**
	일반세대	407,012	27.9	11,707	25.5
	장애인세대	229,395	15.7	8,734	19.0
	모자세대	163,950	11.2	4,970	10.8
	부자세대	45,097	3.1	1,357	3.0
	소년소녀가정	2,214	0.2	105	0.2
	미혼부모세대	478	0.0	16	0.0
	조손세대	7,595	0.5	294	0.6
	기타세대구성	164,183	11.3	4,649	10.1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의 가구원수별 특징을 1인 가구, 노인 세대의 비율이 높았음

- 1인 가구가 7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가 16.4%로 대부분이 2인 가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세대구분을 보면 노인세대가 30.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일반세대를 제외한다면 장애인세대가 19.0%, 모자세대가 10.8%로 다음으로 높았음

〈표 Ⅳ-3〉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가구구성별, 소득수준별

가구특성별(1)	가구특성별(2)	전국		충청북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합계	소계	1,459,059	100.0	45,935	100.0
가구구성	단독가구	735,988	50.4	24,151	52.6
	자녀동거가구	386,729	26.5	11,714	25.5
	부부가구	115,887	7.9	3,879	8.4
	그 외 가족동거	57,029	3.9	1,717	3.7
	비혈연가구	6,116	0.4	220	0.5
	기타	157,310	10.8	4,254	9.3
소득수준	소득없음	510,564	35.0	15,571	33.9
	0~10만원이하	108,668	7.4	4,263	9.3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8,670	2.0	913	2.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298,958	20.5	9,395	20.5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107,620	7.4	3,752	8.2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119,047	8.2	3,845	8.4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67,508	4.6	2,010	4.4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58,238	4.0	1,648	3.6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31,329	2.1	839	1.8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23,209	1.6	656	1.4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0,620	1.4	543	1.2
	100만원 초과~110만원 이하	16,988	1.2	442	1.0
	11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15,879	1.1	450	1.0
	120만원초과	51,761	3.5	1,608	3.5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의 가구구성원과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소득은 소득 없음이 가장 많았음

-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던 만큼 단독가구가 52.6%였으며 자녀동거가구가 25.5%로 다음으로 높았음
- 소득수준은 소득없음이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가 20.5%로 다음으로 높았음

2) 충북의 로컬푸드 매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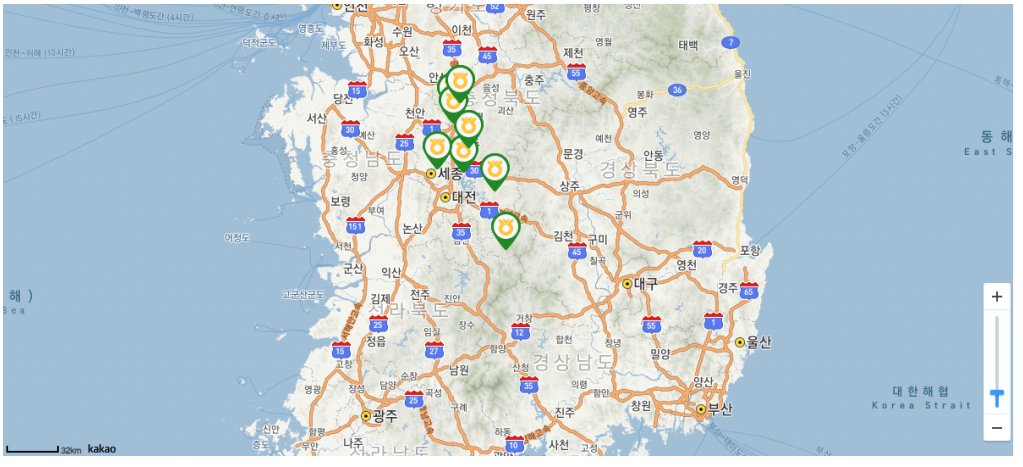
■ 로컬푸드 정의

○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함



자료: 농협로컬푸드직매장, https://nhlocalfood.com/main/main.html

〈그림 Ⅳ-1〉 로컬푸드직매장 유통경로



자료: 농협로컬푸드직매장, https://nhlocalfood.com/main/main.html

〈그림 Ⅳ-2〉 충북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현황 지도

〈표 Ⅳ-4〉 충북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현황

지역	로컬푸드매장명	주소
청주시	청남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1 (효촌리, 청남농협)
	오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96 (오송리)
	내수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1길 72 (학평리, 내수농협,하나로마트)
	충북유통 로컬푸드직매장 용정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28번길 5 (용정동)
	충북유통 로컬푸드직매장 산남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2 (산남동, 농협하나로마트)
	충북유통 로컬푸드직매장 율량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61번길 52-1 (율량동)
	충북유통 로컬푸드직매장 분평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26 (분평동, 호인센트럴존스포츠센타)
	충북유통 로컬푸드직매장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방서동)
	청남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708 (고은리)
	강내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월곡길 85-1 (월곡리)
	청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 (용암동, 청주농협)
	오창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산단지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240 (송대리)
충주시	주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34 (신양리, 농협하나로마트)
제천시	제천단양축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64 (청전동) 상가동 118호
괴산군	괴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72-5 (동부리, 하나로마트)
영동군	영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역전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8 (계산리, 영동농협역전지점,하나로마트)
보은군	보은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43 (교사리, 보은농협하나로마트)
음성군	대소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39 (오산리)
	맹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34 (두성리)
	음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9 (읍내리, 음성단위농협)
진천군	이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55 (송림리, 이월농협)
	진천축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00-31 (벽암리, 축협하나로마트)
	광혜원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91 (광혜원리, 광혜원농협)
	덕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진천군 덕산읍 용몽3길 38 (용몽리, 농협)
	진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5길 12 (읍내리)
증평군	증평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27 (송산리, 증평농협)

자료: 농협로컬푸드직매장, https://nhlocalfood.com/main/main.html

○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매장으로 그 유무가 매우 중요함. 충북은 청주 12개소 → 진천군 5개소 → 음성군 3개소 순으로 많았음

2. 괴산군 추진 사례

○ 충북 괴산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괴산군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억원의 절반인 4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음

○ 괴산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그 후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꾸러미 지원 관련 계획을 심의했음

○ 괴산군은 푸드플랜 수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완화는 물론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괴산군, 2021)

■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중위소득 50%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 2인 가구 기준 월 5.7만 원

○ 3인 가구 기준 월 6.9만 원

○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

○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됨

■ 농식품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

○ 2021년 1월 15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음

■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인 카드 방식으로 지원 함

■ 구매 가능 품목

○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구매 가능 품목이 정해져 있음

○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계란(총 4개 품목만 구입 가능)

■ 발급방법

○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 취급가맹점

〈표 Ⅳ-5〉 농식품바우처 가맹점

순번	가맹점명	주소
1	증평농협청안하나로마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증평농협청안지점
2	증평농협 사리지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3	군자농협칠성지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4	군자농협하나로마트장연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5	괴산한살림영농조합법인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2층
6	불정농협 감물지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 불정농협감물지점
7	군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8	청천농협하나로마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4길
9	불정농협하나로마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4길
10	괴산농협중앙지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괴산농협중앙지점

주: 괴산농협중앙지점은 로컬푸드매장 입점
자료: 농식품바우처 카드 http://mafra.nhdream.co.kr/#

3. 충북형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

1)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추진 방향과 과제(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 지원제도의 기본 추진 방향은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지역과의 연계,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제도 간 연계성 강화(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 지원제도는 국민의 현재 및 미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 농식품/영양소 섭취를 보장해야 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및 지역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수혜자 생애주기, 소비환경 특성에 따른 식생활 특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식품 지원 전달 방식을 구체화하고, 제도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별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모니터링, 수혜자(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김상효 외 2인, 2021)

❍ 향후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중점 고려 사항은 ① 신선식품 현물 위주의 지원, ② 식생활 교육 병행, ③ 지속적인 모니터링(김상효 외 2인, 2021)

- 현물 지원이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현물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김상효 외 2인, 2021)
- 미국의 식품 지원제도인 SNAP의 경우, 수혜자의 건강 및 영양증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공식품을 허용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가공식품 등 지원 품목의 확대는 비가역적일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 포함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김상효 외 2인, 2021)
- 현행 농식품 지원제도 중 영양 지원 목적 지원제도인 영양플러스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김상효 외 2인, 2021). 농식품 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증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연동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김상효 외 2인, 2021).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 식생활 교육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저소득층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김상효 외 2인, 2021)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본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김상효 외 2인, 2021).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의 낙인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사용, 불법거래 등의 방지, 사후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김상효 외 2인, 2021). 모니터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로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율 및 활용률, 취약계층의 식품 지출액 및 영양 섭취 수준 변화,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별 구입경험 또는 섭취 빈도 등이 있음(김상효 외 2인, 2021)

❍ 식품소비행태를 반영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 확대로 취약계층 효용 증대 도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하여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구매했던 기타식품은 발효유, 두부류와 육류임. 이 품목들은 취약계층의 부족 영양소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품목이므로, 향후 공급 품목의 범위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할 때 해당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가공식품으로의 공급 품목 확대는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바, 시범사업단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해 많이 구매한 품목으로는 과일(35.2%), 채소(20.8%), 계란(10.2%), 우유(8.5%) 순으로 나타났고, 함께 구매한 바우처 외 품목은 가공식품(59.4%), 육류(18.4%), 수산류(12.1%), 곡류(3.9%) 순으로 나타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 현물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김상효 외 2인, 2021)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물 중심의 농식품 지원제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공고해야 함(김상효 외 2인, 2021). 특히,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공급-식생활 복지-영양관리 3가지 영역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함(김상효 외 2인, 202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 시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영양관리법」, 의원발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등으로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였으나, 본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명시적 법적근거가 필요함(김상효 외 2인, 2021)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 농식품 복지 업무 전담조직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김상효 외 2인, 2021)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의 대상 품목 등 관련 분야의 동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김상효 외 2인, 2021). 현물 중심의 농식품 지원제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조정·추진해야 하는데,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김상효 외 2인, 2021)
-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농식품 지원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지원 정책 간 연계/통합을 도모해야 함(김상효 외 2인, 2021). 단기적으로는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농식품 지원사업의 업무 영역 중복 문제와 국간 통합/조정의 문제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사회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고려한 새로운 지원제도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임(김상효 외 2인, 2021).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소비계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담당, 식생활계에서 바우처 수혜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김상효 외 2인, 2021)

2) 충북의 농식품바우처 추진방향

■ 충북의 대상지역 선정

○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수가 많지 않으면서 비교적 로컬푸드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었음

- 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도입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농협 로컬푸드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행이 어려움

○ 따라서 인구수가 적으면서 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갖추어져 있는 괴산군의 도입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며 향후 추가로 보은군과 증평군의 도입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로컬푸드 매장 중심의 지역농산물과의 연계강화

❍ 시범사업이 로컬푸드 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역농산물과의 연계성은 크다고 봄. 충북은 복숭아, 포도, 사과 등 특화된 과일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과일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식품이기도 함.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옥천과 같이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없지만 지역 로컬푸드가 활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 농협매장을 중심으로만 이용하는 것보다 선택의 기회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생산만으로 부족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정부는 2022년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등의 문제로 전 지역에 시행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범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충북에서 아직까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황임. 따라서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각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농식품바우처 사업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야 함

■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조직 구성

❍ 농식품바우처는 시범사업만 진행된 상태로 정부에서도 시행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충북지역도 농식품바우처 도입을 위해서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 행정분야 등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제V장 결론

1.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정부는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에 있음

- 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농식품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임

○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임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농·축산물 등), 식약처(가공식품·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

○ 이와 더불어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식품영양정보와 의료정보 등을 농식품바우처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식생활과 건강상태가 연계되어 더욱 큰 사업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향후 확대 시행될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돕고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음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 본 연구는 충북에서 아직 논의 된 바가 없는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2022년의 정부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함

❍ 따라서 지속적인 진행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시행 시 충북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정보가 부족하므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음

❍ 향후 농식품바우처가 시행된다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이계임 외 4인, 2019,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 외 4인, 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유기환, 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sites/mafra/index.do
-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index/index.do

기획과제 2021-07

충북형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발행인 | 정 초 시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8 팩스 043-220-119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제 작 | 이 에 스 043-279-7070

ISBN | 978-89-6455-569-9 935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